

독서 1단계 : 패스파인더

[예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패스파인더(pathfinder)란, 직역하면 ‘길 찾는 놈path-finder’입니다. ‘길잡이’, ‘개척자’같은 뜻으로 자주 쓰이는 이 단어는 미국이 쓴 화성 탐사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독서 1단계 커리큘럼인 패스파인더는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지문 독해, 문제풀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길잡이입니다. 패스파인더라는 명칭을 따 온 이유 역시 여러분들의 국어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지문 독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글은 ‘생각이나 일 따위의 내용을 글자로 나타낸 기록’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글은 크게 운문과 산문으로 나뉩니다. 운문이란 운율을 지닌 글, 즉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언어를 배열한 글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현대시, 고전 시가 등이 운문에 속합니다. 운문과 대립되는 속성을 지닌 산문은 율격, 리듬 등의 외형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문장으로 표현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문은 소설, 희곡, 수필, 논문 등을 포괄합니다. 산문은 다시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뉩니다. 비문학이란 ‘문학이 아니다(非)’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최근의 기출에서는 ‘독서’라는 이름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독서 지문은 지문과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역시 글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엄밀히 정의하자면 독서 지문은 모두 산문이며 대다수가 설명문에 속해 있습니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說明文)은 객관적인 정보를 그 정보를 모르는 대상을 독자로 설정하고 알려 주는 글입니다. 따라서 설명문에는 어려운 용어의 정의, 자세한 과정의 묘사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이 모른다는 것을 가정하고 주어진 정보이므로, 잘 확인했는지를 묻는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문제’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게 될 문제의 사전적 정의는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입니다. 문제는 발문*(물음), 5번까지 이루어진 선지, 보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문의 주요한 목적은 사고를 자극함으로써 학생의 적극적인 사고를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발문에서 학생은 적극적으로 문제풀이에 사용할 사고의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발문에서 기준을 잡은 후에는 선지로 넘어가서 정오판별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발문에 적합하지 않은 답을 고르고 맞다고 착각하는 행위입니다. 사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어 시험에서 선지는 1번에서 5번까지의 다섯 개로 구성됩니다. 다섯 개 중 하나는 발문에 적합한 정답이며, 나머지는 발문에 적합하지 않은 오답입니다. 다섯 개의 선지 중 몇 개가 상식적, 그리고 지문에 의거하여 맞는 말

인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하지만 항상 유념해야 하는 사실은, ‘발문에 적합한 답’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5개의 선지 중 적합한 한 가지를 빠르게 찾는 덕목이 중시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지의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어떤 부분을 지문에서 찾아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선지의 옳고 그름은 보통 선지의 문장 중 한 두 단어에서 판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핵심 단어를 빠르게 잡아 내 문제의 급소를 찌르는 촌철살인*과 같은 문제풀이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지문과 다르게 문제에 속해 있지만, 해당 지문의 연장선 또는 지문과 별개의 개체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 ‘보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보기는 추가적인 정보라고만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보기에서도 다양한 입장을 파악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문연장형 보기’입니다. 이 유형의 보기는 지문의 내용과 흡사하되 지문과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만든 문제라면 지문과 보기에서 일정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보기에서 주어지는 정보에서 문제풀이에 필요한 핵심적 근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문심화형 보기’입니다. 이 유형은 흔히 경제 지문이나 과학 기술 지문에서 다루어진 세부적 서술 또는 그림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경제 지문 내부의 그래프를 변형 또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나, 과학기술 지문의 세부 원리를 그림 또는 도표 등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잘 만든 지문심화형 보기는 지문의 내용을 이해한 후, 추가적으로 고민할 거리를 제시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디만 잘 못 만든 문제의 경우 추가적인 사고과정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2018년 7월 학평에서 출제된 ‘노동 가능 인구’ 지문은 지문의 그림과 36번 문제의 그림이 일치함으로써 별다른 고민 없이 지문의 내용을 보기에 대입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문에 실린 몇 마디를 확장시킨 보기 역시 지문심화형의 범주에 넣는 것이 편합니다. 세 번째는 ‘지문대조(대비, 대치)형 보기’입니다. 이 유형의 보기에서는 지문의 주요 서술과 반대되는 입장이 서술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기의 내용은 지문과 완벽히 반대되는 입장일수도, 일부는 지문과 일치하되 일부는 대비되는 입장일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문과 보기에서 파악하는 것이 문제풀이의 핵심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유형의 보기는, 보기에서 언급하는 내용과 연결된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기의 유형을 파악했다고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것은 금물입니다. 언급된 세 가지 보기 유형 문제의 정답은 모두 발문과 선지에 의해서 도출되는 것이고, 보기는 정답 도출에 필요한 도우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니까요. 보기만 꼼꼼하게 이해하려다가 발문이나 선지에서 요구하는 바를 확실히 잡아내지 못해 틀리는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지문과 대치하는 내용을 가진 보기이더라도 정답 선지는 지문과 일치하는 내용일 경우도 있

다는 말입니다. 이 반대 역시 존재합니다.

독서 1단계 패스파인더는 이러한 지문, 문제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가집니다. 나아가 실전 문제풀이 스킬을 연마하는 2단계 과정을 밟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우선 자전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내가 잡는 곳이 핸들이며 핸들에는 브레이크가 붙어 있다. 발로 밟는 곳이 페달이다. 핸들을 좌우로 움직이면 자전거의 방향이 바뀌며, 브레이크를 잡으면 자전거가 멈춘다.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가 나아가며, 더 세게 밟을수록 더 빨리 나아간다 같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 말입니다. 국어가 뭔지 모른다? 국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패스파인더 하세요. 독서의 기본을 잡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까요.

* 발문(發問, questioning) : 교육심리학 용어으로써,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여 그에 대한 답을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정답이나 깨달음을 얻게 하는 질문기법.

* 촌철살인(寸鐵殺人) : 한 치밖에 안 되는 칼로 사람을 죽인다는 뜻으로, 간단한 경구나 단어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또는 사물의 급소를 찌르는 것을 비유함.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독서 1단계 패스파인더는 화성 탐사선의 명칭에서 영감을 받아 따 온 명칭이다.
- ② 산문은 율격과 리듬에 얽매이지 않으므로 문학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 ③ 독서 지문은 모두가 보통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문이며 동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문이다.
- ④ 정오판별에서는 핵심 단어 한두 개를 빠르게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 ⑤ 학평 기출 문제 중에는 지문의 그림과 보기의 그림이 일치하여 간단한 대입방식으로 풀 수 있는 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언급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전달하려는 내용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③ 상위 개념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을 나열하고 있다.
- ④ 질문 형식의 표현으로 전달하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대립되는 두 관점을 소개하고 이 둘의 시비(是非)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3. 윗글의 ㉠에 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반복되는 후렴구를 지닌 고전 시가는 '글'의 범주에 속한다.
- ② 글자로 나타내지 않았다면 글이 아니다.
- ③ 설명문의 특성상 생략되어지는 정보가 많으며, 그 내용에 대한 유추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종종 등장한다.
- ④ '보통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을 산문이라고 한다.
- ⑤ 문제 역시 글의 범주에 속해 있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보 기>—

보기의 내용은 보통 지문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지문독립형 보기'의 경우 지문과 관계없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내용이 진실로 지문의 내용과 동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상호 배타적인 기존의 입장 사이에서 '지문독립형 보기'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가) 상헌 : 지문독립형 보기는 지문과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 보기의 내용이 지문의 내용과 흡사하다고 하더라도 지문과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문과 보기의 내용을 억지로 연결시키려는 것 보다는 보기를 또 다른 하나의 짧은 지문으로 인식하고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독해 과정에서 오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나) 형석 : 아무리 지문과 교집합이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문독립형 보기는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었다. 따라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지문의 세부적 서술, 그림 등과 보기의 연결성을 찾는 것이 지문독립형 보기를 독해하는 핵심이다.

(다) 영은 : 지문독립형 보기를 학생들이 잘 파악하지 못 하는 이유는 지문을 잘 독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문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보기의 내용은 사실 지문의 주요 서술과 반대되는 입장을 서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문에서는 나오지 않은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연결성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 ① 상헌은 경제 지문이나 과학기술 지문의 그래프 또는 그림을 '지문독립형 보기'의 예시로 들 것이다.
- ② 형석은 지문과 대치하는 내용을 가진 보기이더라도 정답 선지는 지문과 일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대할 것이다.
- ③ 형석은 '지문독립형 보기'의 정답은 발문과 선지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며, 보기는 정답 도출에 필요한 도우미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견에 반대할 것이다.
- ④ 영은의 입장에서는 잘 못 만든 문제의 예시로 지문과 그림의 내용이 일치함으로써 추가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들 것이다.
- ⑤ 영은은 '지문독립형 보기'의 정답은 발문과 선지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며, 보기는 정답 도출에 필요한 도우미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견에 찬성할 것이다.